“선암사는 태고종 총림이자 중심축”

1면에서 이어짐

6월 10일 열린 승려대회서
“한국불교 적자 종단” 강조
정통종단 위상 높일 것 다짐
운경 스님 “100년 준비” 당부

순천 선암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6월 10일 선암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은 선암사를 지켜낸 정신을 바탕으로 종단 발전과 미래 100년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대회사에서 선암사 문제 해결을 넘어 종단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오랜 굴레와 시련을 뒤로하고 한국불교 적자 종단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다”며 “종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불조의 혜명을 온전히 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님들의 수행과 정진, 즉 내실을 다지는 교육불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봉행되는 승려연수교육은 무명의 사바세계를 밝히는 지혜의 안목을 넓히고 종단이 지향해야 할 정법의 이정표를 공유하는 수행의 장”이라며 “부처님의 교법과 종단의 가풍을 새롭게 새겨 현대사회 속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도의 원력을 더욱 견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우리 종단은 해동 율맥의 유일한 전승지이자 수행의 종가”라며 “전통의 가사와 고유한 의례, 예법을 고수하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청정계율의 정통성을 묵묵히 사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의 법맥과 율맥을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완벽하게 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불교태고종이 한국불교의 적자 종단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선암사를 종단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종정 운경 스님은 법어에서 선암사 수호는 사찰 소유권 분쟁이 아니라 태고종의 정체성과 법통을 지켜낸 역사였음을 강조했다. 운경 스님은 선암사를 둘러싼 갈등 과정을 ‘법난’으로 규정했다. 이어 선암사 수호를 위해 전국 종도들이 현장을 지키고 법적 대응에 나섰던 과정을 언급하며 “오늘의 선암사는 수많은 종도들의 원력과 희생 위에 지켜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운경 스님은 승려대회 개최 배경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선암사가 한국불교태고종 사찰임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선암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승려대회는 종도들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종권 수호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종단의 미래 과제로 개혁과 혁신을 제시했다. 운경 스님은 “종단이 법맥 계승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종단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교육 강화와 제도 개선, 종책 연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단 의전 순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다. 스님은 “태고종은 한국불교 5대 종단 가운데 하나임에도 그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암사 수호를 통해 확립한 종권을 바탕으로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종도 모두가 힘을 모아 종단 발전과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원장 재홍 스님은 “역사의 변천 속에서 여러 계파와 법맥 흐름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으나 조선 후기 조선불교조계종을 이끌었던 청허계와 부휴계 양대 문파가 모두 태고보우국사를 한국불교의 종조로 공인하고 불조원류에 이르러 임제태고법통설이 확립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불교의 역사”라면서 “위대한 태고 종조의 종지종풍을 이 시대에 다시금 찬란하게 선양하자”고 당부했다.

승려대회 후에는 연수교육이 진행됐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이 강사로 나서 ‘한국불교 종조론 논쟁의 전모-종헌과 종조의 법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군승 묘역을 참배하며 호국원력을 되새겼다.

순직 군승 헌신 기리며 호국원력 되새겨

군종교구 6월 5일, 현충원 참배
법원 스님, 순국선열에 감사·위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군승 묘역을 참배하며 호국원력을 되새겼다.

이번 참배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국방부 원광사 주지 성현 스님,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 주지 혜징 스님, 공군항공안전단 보라매법당 주지 여거 스님, 지상작전사령부 선봉사 주지 정행 스님, 국군고양병원 자견사 주지 세광 스님, 제1군단 일승사 주지 경진 스님, 제17보병사단 호국연주사 주지 명원 스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해원사 주지 덕명 스님 등이 함께했다.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 아래 호국정신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육군 고(故) 이동신 법사를 시작으로 육군 고(故) 김인수 법사, 육군 고(故) 김봉식 법사, 해군 고(故) 김수남 법사까지 4명의 군승 묘역을 찾아 헌화와 묵념, 반야심경 봉독을 통해 추모했다.

이날 법원 스님은 ‘먼저 걸어가신 호국·호법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는 추모의 글을 남기고, 각 묘역을 직접 닦는 등 순직 군승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며 “호국영령 포함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모든 국가 유공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운 기자

화엄사 명초 스님, 아미타병원에 1억5천만원

호산 스님, 6월 10일 감사패 전달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 명초 스님이 평생 근검절약하며 모은 1억5000만원을 아미타불교요양병원(대표이사 호산 스님)에 기부했다. 호산 스님은 6월 10일 화엄사 이천당에서 명초 스님을 대신해 주지 우석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명초 스님의 원력과 자비행을 높이 기렸다.

명초 스님은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입원한 스님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최근 1억5000만원을 지정 기부한 바 있다. 명초 스님이 평생 동안 근검절약으로 소박하게 생활하면서 모아둔 전 재산이기에 이번 기부는 더욱 감동을 더한다.

이날 호산 스님은 “소중한 후원금을 병원에 입원하는 스님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용구 아미타불교요양병원 행정원장은 “스님들이 노후에 승가의 위의를 지키며 수행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법인인 만큼, 스님을 공경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병원으로서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일화 스님 “불교문화 발전에 최선”

제3회 무산문화대상 기자회견서
소형 암자까지 템플스테이 확대


제3회 무산문화대상 수상자인 예술부문 서도호 미술가, 문학부문 정수자 시조시인, 사회문화 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왼쪽부터).

“저의 은사 광주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창립을 기획해 초대 단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20여 년 후 제가 단장으로 취임하고 무산문화대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제3회 무산문화대상 사회문화 부문 수상 단체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 일화 스님은 6월 9일 웨스틴조선 서울 라일락홀에서 열린 수상자 기자회견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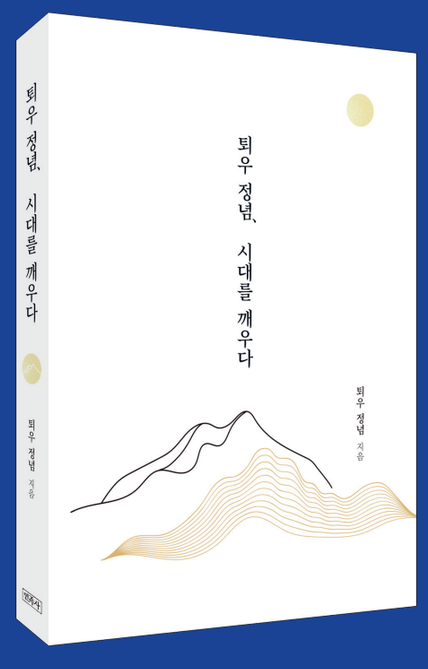
일화 스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사업단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 바탕에는 1700년의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가 있다”면서 “유구한 전통의 문화가 있기에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화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주요 사업인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대중화 방안을 전하고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계획도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5월 19일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내부 의견을 종합해보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사찰음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세계 유수의 요리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미국 CIA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사찰음식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짧게는 4~5년, 길게는 6년 가량이 걸린다.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학 부문 수상자 정수자 시조시인은 “무산 스님의 말씀을 죽비 삼아 여기까지 왔다”고 밝히며 “시조라는 형식은 절제를 실현하는 좋은 양식으로 탐욕과 폭력이 만연한 현대에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예술 부문 수상자 서도호 미술가도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화엄의 세계관으로 읽는 AI시대 문명 철학서
“수행은 법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성된다”
“불교가 시대와 만나지 않으면 도태된다”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퇴우 정념 지음 | 344쪽 | 18,500원

퇴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 2026년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앰베서더 풀만 호텔 (장충로 2가) 그랜드볼룸
민족사